

第4次 PVC管 施工技術訓練을 마치고

河 守 德

本協會 主催 第4次 PVC管 施工技術訓練을 商工부와 서울特別市 水道局의 後援으로 75年 3月 4~14日까지 10日間에 걸쳐 서울特別市水道局 教育場(往十里 펌프場)에서 가진바 있다.

本協會는 PVC管의 水道管으로서의 優秀性을 널리 알리고 그 施工技術을 普及하기 위하여 73年 1月15日 第1次 施工技術訓練을 가진 以來 4次에 亘하여 實施하였으며 그間 資格証 發給 人員이 207名에 達하고 있다. (別表參照)



〈教育光景〉

이 機會에 強調하고자 하는것은 첫째 標準化된 施工技術을 最大限 活用해 달라는 것이다. 이번 施工技術訓練을 통해서 水道用 PVC管의 標準化된 施工技術과 必要한 理論에 대해서 習得한것을 긍지와 自信을 가지고 果敢하게 現實에 適用해주시기 바라며 항상 謙遜한 마음가짐과 用意周到한 事前準備로서 完全無缺한 設計 施工 및 補修에 臨해야 할것이다.

韓國PVC管協會 專務理事

둘째 上水道“새마을運動의 旗手로서의 責任과 義務를 遂行하는데 奮發하여야 할것이다. 人間生活에 必須不可缺한 물을 供給하는 事業이야말로 너무나도 重要한 事業이며 이와같이 重要한 上水道供給 과정에서 不合理한 點 또는 非能率의인 工法의 改善, 資材의 節減, 原価節減과 漏水防止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廻해 나가야 할것이며 또 設計 및 監督技士는 가장 合理的인 設計와 效果的인 施工監督을 하여야 될 것이고 配管技術者는 감독의 빈도에 관계없이 設計에 充實한 施工으로 자기가 부설한 PVC管에서는

〈表〉 PVC관 시공기술 자격증 발급 현황

구 분		제 1 차 (73. 1. 15~25)	제 2 차 (73. 11. 12~22)	제 3 차 (74. 11. 25~12. 5)	제 4 차 (75. 3. 4 ~14)	합 계
공무원	서울	15	7	9	19	50
	지방		10	1	1	12
	소계					62
시공업체	서울	58		7	25	90
	지방		10	8	2	20
	소계					110
대리점	서울		7	3		10
	지방		9			9
	소계					19
회원사	한국		2	1	1	4
	력키		4			4
	내쇼날		2			2
	진양		2		2	4
	동아 소계		2			2
합 계		73	55	29	50	207

절대로 漏水事故가 發生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때 이는 上水道 새마을運動의 成果에 包含되는 것으로서 여러분은 이 운동의 旗手로서 貢獻하여야 될 것이다.

세계 鑄鐵管 및 鋼管과 水道用 PVC管의 代替時期가 到來하였다는 點이다. 제일 먼저 水道用 PVC管을 生産使用한 獨逸이 鐵管類에 投入되는 鐵을 軍輸産業用으로 轉換使用한 第2次大戰前의 事實만 보더라도 PVC管은 가진 特性으로 鐵管과 代替使用되어야 할 것이다. 世界的으로 石油波動 以後 資源戰爭을 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資源節約을 위해 努力하고 있는 이때 74年度 우리 나라의 古鐵輸入量은 約

120万吨으로 約 一億八千萬弗이라는 莫大한 外貨를 드려 古鐵을 輸入하고 있으며 그中 3分之1인 40万吨 정도가 鐵管製造用으로 使用되는 것을 볼때 적어도 150mm 以下 口径管은 水道用 PVC管으로 代替使用하여야 될 歷史的인 時點에 到來하였다고 믿는 바이다.

끝으로 強調하고자 하는 것은 PVC管施工에 關한 知識과 技術은 계속적으로 研究 開發되어야 하겠으며 이번 機會에 習得한 知識과 技術은 明日부터는 實際活用될 것이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研究練磨하여야 하겠으며 疑問點이나 支援이 必要한 경우 協會나 會員社에 問議 또는 支援要請을 하여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알 림〉

- 協會 創設이후 그間 어려운 協會運營을 맡아 努力하시던 初代 事務局長 韓奉永氏가 辭任하고 75. 4. 10. 美國 Los Angeles로 移住次 出發하였음.
- 協會 發展에 功勞가 많으신 韓一消毒機工業株式會社 金寅奎社長께서 75. 4. 25. 宿患으로 別世하셨음.
役任에는 梁圭鎬 專務께서 就任하였음.

- 礎石建設株式會社 (本社 事務室 移轉)
서울特別市 龜山區 葛月洞 101-42
☎ (42) 0305~6 (42) 1173
- 韓國水處理産業株式會社 (本社 事務室 移轉)
서울特別市 道峰區 水踰洞 191-17
☎ (99) 7113
- 韓一消毒機工株式會社 (工場 移轉)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新亭洞 160-9
☎ (62) 6770